



재밋섬 의견서 냈다고 5년 지원 실적 요구 '과장'

안창남 도의회 문광위원장 "성급한 매입 반대 말라"는 문화예술인 연명자 특정해 보조금 지원 내역 등 요구

제주민예총 긴급 논평 내고 "제주관 블랙리스트 멈추라"

제주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재밋섬 건물 매입 반대 결정을 미뤄달라고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지난 5년 동안의 보조금 지원 실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해당 문화예술인들은 "예술인들을 사찰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안건을 다뤘은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를 통해 비공개 문서로 문화예술 분야 공모 지원 사업을 벌이는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두 곳에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과 정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두 기관은 지난달 30일까지 관련 자료를 수합해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대상을 특정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으로 한정했다. 해당 문화예술인들은 17명(팀)으로 이 숫자는 재밋섬 매입에 대해 "성급한 반대 결정을 내리지 말고 속의하라"며 지난달 22일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름을 밝힌 인원과 일치한다.

이번 자료 요구는 예산 감시 등을 맡는 도의회의 통상적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발언을 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견서 제출 명단에 오른 한 문화예술인은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다. 말이 안되는 소리다. 예술인들을 사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제주민예총은 31일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광위원장 제주관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를 즉각 멈춰라'는 제하의 긴급 논평을 냈다.

제주민예총은 "안창남 위원장이 최근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의 합리적 해를 최근 5년간 지원 내역과 정산 내역 제출을 제주도, 제주영상산업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요청했다"면서 "안창남 위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아트플랫폼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을 털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화예술인들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문화 검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을 '제주도의회발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규정하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는 제주민예총은 안창남 위원장의 사과와 더불어 문화관광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의 원칙을 훼손하고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제주영상산업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창남 위원장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왜 (의견서 제출에) 나섰는지 모르겠다. 의견서 연도 의회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도 있었다"며 "누군가가 부추긴 게 아닌가해서 참고 자료로 제주도에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수의 '사색하는 여인' (캔버스에 혼합재료, 1987).

여인과 누드에 밴 생의 희로애락

저지리 제주현대미술관 김홍수 상설전시 재가동 여성·누드 소재 기증품

'김홍수 기증 작품 상설전시실'을 두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현대미술관이 새로운 소장품으로 상설전을 열고 있다. 김홍수(1919~2014)는 '음악 조형주의' 일명 '하모니즘'이라는 새로운 조형 방법론을 제시했던 한국현대미술 1세대 작가다. 그는 2006년 2월 당시 북제주군과 제주현대미술관에 전시할 작품을 기증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때 협약한 작품은 '여인좌상', '사랑은 세상에' 등 20점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2007년 9월 제주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김홍수 작품 상설 전시실이 운영되고 있다. 단, 지난해 11월부터는 작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상설전을 잠시 중단했고 그동안 공공수장고에서 기증품 클리닝 작업이 이뤄졌다.

지난달 5일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상설전시실 작품은 1970년대~1990년대 완숙기의 회화 중에서 김홍수 예술의 창조적 영감이 됐던 '여성'과 '누드' 소재 기증품으로 꾸며졌다. '사색하는 여인' (1987), '꿈' (1990), '바람' (1992), '눈이 큰 여자' (1994), '영태' (1995) 등이다. 생전에 작가는 이들 작업에 대해 "단순히 여인의 피부, 누드의 표피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누드, 희로애락을 가진 여인의 절실한 감성을 그린 것"이며 "한 여성을 통해 들여다본 환희와 절망, 허무와 끝없는 욕망"이라고 설명했다. 미술관은 회화와 더불어 영상, 사진, 도록 등 아카이브 자료를 함께 전시해 김홍수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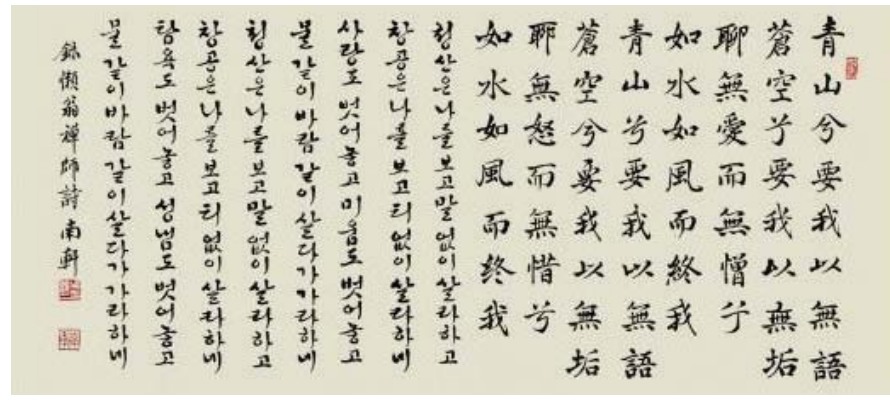
제주·강원 서예대전 초대작가 만남

4월 3-8일 문예회관 전시실 두 지역 80명 출품 교류전

제주 한라산, 강원 설악산의 기운을 받아 글쓰기에 정진하고 있는 두 지역 서예가들이 제주에서 만난다.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회장 박민자)가 4월 3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펼치는 제주·강원초대작가교류전이다. 이번 교류전은 '전통과 현대의 융

합'을 주제로 마련된다. 지역의 대표적인 공모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 35명,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회(회장 권중모)의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45명이 참여해 80여 점을 선보인다.

박민자 회장은 두 지역이 "강원 여초서예관, 제주주사관 등 서예 관련 문화명소를 뒀고 관광지로 손꼽히는 공통점이 있다"며 "과거와 현재의 충돌을 도반의 숙명적 만남으로 인정하고 함께 조우하는 터전으로 소통



제주도서예대전 초대작가 오의삼의 나운선사 시 '청산혜요(青山兮要我)'.

의 방식을 찾아내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주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는

2015년 창립전을 가졌다. 충남·서울 교류전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 일거리 창출

도시문화기획자 전국 공모 공간 운영 청년 교육생 선발 시민 모니터링단 등도 가동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를 비전으로 내건 '문화도시 서귀포'가 문화 일거리 창출에 나선다. 마을·문화권별 문화계획에 따른 도시문화기획자를 공개 채용하는 등 '문화시민력'을 만드는 작업을 벌인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도시문화기획자 1명을 전국 공모한다. 도시문화기획자는 노지문화에 기반한 105개 마을의 연구개발과 리서치를 통해 도시의 문화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화도시 연구개발과 특성화사업 계획, 노지문화와 지역문화 생태계 리서치, 문화도시 정책, 마을·문화권별 문화계획,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획과 실행 등이 주요 업무다.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문화정책, 도시연구, 문화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문화행정(지역문화재단, 공공기관 등)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지원 가능하다. 원서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협약한 제주더큰내일센터의 '더 탐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교육생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력은 4월 중 이전 개소 예정인 문화도시 서귀포 시민문화거점공간(서귀권)인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서귀포시 흥중로 33) 내 '창의문화스페이

스', '시민워킹스페이스' 공간을 직접 계획, 운영을 하는 등 프로젝트 기반형 실습 프로그램을 6개월간 펼친다.

이와 함께 '시민문화 거버넌스'를 이용한 일거리 만들기도 추진한다. 시민워킹그룹과 실행그룹, 자문단, 프로젝트 매니저, 파트너 기획자, 시민모니터링단, 시민원탁그룹 등을 가동하는 방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www.nojiculture.kr), 문화도시 서귀포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67-9508. 진선화기자

축진
CONGRATULATIONS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양영진(40회)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중학교총동창회
회장 이태종 의 회원일동

당선
CONGRATULATIONS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 지부장

이분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 지부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
임원 일동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4월 1일 **개관 11주년 감사 이벤트**

오션스위츠 제주호텔(대표이사 김형태)은 오는 4월 1일 개관 11주년을 맞이하여 제주도민 및 방문고객을 위한 저녁상설 뷔페 할인 및 감사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에게는 20%의 할인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무료회원 가입 시에는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불과 8분 거리에 위치한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은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내려다 보이는 Ocean View 객실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원목마루 객실로 제주를 이해하고 바다의 경이로움을 담으며 유럽풍의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현대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며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뷔페식당 '블루오션'에서는 4월 한달 동안 생맥주 무제한 무료제공과 더불어 대게전, 즉석스테이크, 즉석초밥 외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숙박권, 식사권, 와인 등의 무제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예약: 1577-9766(객실), 720-6300(뷔페)